

저장성- 사치품 소비의 증가

이상희 연구원

- 최근 중국의 사치품(Luxury goods)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Mckinsey & Company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치품 시장은 16%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사치품의 판매액이 120억 달러에 달함.

* 사치품(luxury goods) :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명품(名品)이라 불리는 고가의 수입품을 지칭함.

-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2015년까지 경제적 최상위 층을 제외한 중상위층(연소득 10만 위안-20만 위안 혹은 \$15,000-\$30,000) 7,600만 가구가 중국 사치품 소비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저장성의 사치품 소비가 중국 전역에서 두드러짐.
- 세계 명품협회(WLA: World Luxury Associ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사치품 시장에서 저장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단일 성으로서 가장 높음
- 중국의 10대 사치품 소비 도시들 중 저장성의 성도(省都)인 항저우와 원저우가 각각 3위와 7위를 차지함.

표 1. 중국의 10대 사치품 소비 도시

순위	도시	시장 점유율(%)
1	상하이	18.3
2	베이징	16.2
3	항저우	13.4
4	청두	11.6
5	다롄	10.2
6	칭다오	8.9
7	원저우	7.5
8	충칭	5.1
9	정저우	4.5
10	선전	4.3

출처: 세계 명품협회 (WLA: World Luxury Association)

그림 1. 10대 사치품 소비 도시 분포



- 원저우시의 경우, 3급 도시이지만 높은 민영기업 비율과 중국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에 힘입어 사치품 소비가 활발함.

- 일례로 중국에 등록된 고급 승용차의 약 5%는 원저우시에 소재하며, 올해 저장성이 수입한 와인의 54%가 원저우시에서 소비됨.

- 저장성의 높은 소비수준은 높은 소득수준에 기인
- 저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5만 2,059위안(2010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상하이, 텐진, 베이징, 장쑤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음.
- 중국의 부호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후룬(胡潤)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저장성은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에 이어 4번째로 백만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 저장성에 약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구는 총 11만 6,500명이며 약 1,000만 유로 이상의 자산가는 총 6,760명임.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 보유자 중 4만 7,300명이 항저우, 2만 400명이 원저우, 1만 3,500명이 닝보에 거주하고 있음.

표 2. 저장성의 1인당 소득이 높은 상위 5개 도시(2009년 기준)

도시	1인당 소득(위안)	인구(백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위안)
원저우	28,021	8.2	30,741
닝보	27,237	7.5	56,299
사오싱	26,874	4.7	50,695
항저우	26,864	8.5	59,659
자싱	24,693	4.4	43,520

출처: EIU Access China

- 저장대 민영경제 연구소 스진촨(史晉川) 교수는 저장성의 1인당 GRDP가 2014년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

- 이 같은 소비행태를 볼 때 한국의 사치품 및 고급 소비재 기업들은 중국 사치품 시장 진출 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원저우와 닝보, 사오싱, 자싱과 같은 저장성 내의 소도시들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Mckinsey & Company 보고서, 胡潤富豪榜, 각종 신문기사, 현지 인터뷰)